학교모범學校模範

글을 시작하면서

하늘이 만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하늘이 준 거룩한 덕을 누구나 다 받았건만 사도[1]가 끊어지고 교화[2]가 밝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작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비의 풍습이 경박하여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헛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아서 위로는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에 빈자리가 많으며,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하고 윤리의 기강이 날로 무너져 없어지고 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참으로 한심[3]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장차 지난날의 물든 습속을 일소하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비를 가려 뽑고 가르치는 방법을 다해서 성현의 가르침을 대략 본받아 『학교모범』을 만들어서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몸

---

1 사도(師道) : 스승 된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
2 교화(敎化) : 백성을 가르치고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
3 한심(寒心) :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는 뜻.

을 가다듬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규범을 삼게 하니 모두 16조로 되어 있다. 제자 된 자는 참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고 스승 된 이는 더욱 이 법규로써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 이끄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해설

『학교모범(學校模範)』(1582)은 『격몽요결(擊蒙要訣)』(1577), 『성학집요(聖學輯要)』(1575)와 함께 율곡의 중요한 교육 수양서입니다. 『격몽요결』은 율곡이 해주에서 학도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교육에 대해 정리한 책이고, 『성학집요』는 선조에게 제왕의 학문을 정리해 바친 책입니다. 『격몽요결』은 『학교모범』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서로 보완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학교모범』은 율곡이 대제학으로 재직하던 1582년(선조 15)에 왕명을 받고 스승을 고르고 선비를 기르는 목적으로 관학 교육을 위해 저술한 책입니다. 율곡은 서문에서 이 책을 지은 이유를 핵심적으로 밝혀두었습니다.

율곡은 당시 선조가 통치하는 조선의 상황을 위로는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서 벼슬에 빈자리가 많고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하고 윤리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율곡은 이를 보고 한심(寒心)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심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도에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딱하거나 기막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할 일은 뒤로 미루고 허구한 날 밖으로만 다니는 그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 '어허, 한심하구나.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러서야….' 등으로 사용됩니다.

한심은 한자에서 온 우리말입니다. 차다는 한(寒)과 마음이라는 심(心)이 합쳐진 글자로, 풀이하면 마음에 찬 기운이 돈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가 본 적이 있는지요.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율곡은 선조의 조정에 인재가 모자라고 아래로는 풍속이 날로 퇴폐해지는 상황에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율곡은 서문의 맨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 만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하늘이 준 거룩한 덕을 누구나 다 받았다." 이 안에 율곡 교육론을 형성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하늘이 낳은 모든 존재는 법칙이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불은 타올라 하늘로 치솟습니다. 새는 숲으로 날아오고 동물은 들판으로 내달립니다. 우주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 될 때에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개별 사물에서도 계통 안에서도 법칙은 늘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법칙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화법을 동원하면 사람이 사람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율곡의 표현을 빌리면 거룩한 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거룩한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율곡만의 주장이 아니고 유학 인성론의 대전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맹자의 성선설이고, 공자의 인학(仁學) 곧 사랑의 학문입니다.

『중용』에 유가 인성론을 가장 잘 정식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중용』 1:1) 모든 존재자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는 거룩한 덕을 가지고 있다 하여 덕성(德性)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교는 중생들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유학자들은 인간은 덕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이 된다고 하여 불교와 구분을 짓습니다.

불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해보겠습니다. 불교 공부법을 여섯 글자로 표현한 말로 명심견성성불(明心見性成佛)이 있습니다. 마음을 밝혀서 불성을 깨달아 부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인연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생겨나고 인연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소멸하는 이치를 모르고 집착합니다. 자아에 대한 기대감과 집착, 장수에 대한 기대와 집착, 명예에 대한 기대와 집착, 부귀에 대한 기대와 집착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집착하면 그 대상을 오래도록 붙잡아 두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가합물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니 고통은 피할 수 없

습니다.

청정무구한 마음을 갈고 닦아 인연법을 깨달아 어리석은 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관령 고개를 넘어 강릉으로 들어가는 내리막은 늘 짙은 안개가 흘러내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상 신호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지 않으면 멀리 소나무 위로 펼쳐진 푸른 바다는 속이 다 시원합니다. 무명을 벗어나는 것은 눈앞의 짙은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연법을 깨달으면 모든 것은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착 중 가장 큰 것이 자신에 대한 집착이지요. 나의 자성은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본모습이 불성입니다. 불성이란 고정된 자성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종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깨달은 자라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인 붓다를 한역한 것이 불(佛)입니다.

덕성은 불성과 다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말인데, 맹자는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자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의를 한자 훈으로는 어질 인이고 옳을 의라고 하는데, 인은 사랑이고 의는 정의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은 감싸준다면

정의는 분별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랑은 편애처럼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랑이 없는 정의는 각박하고 살벌하지요. 예는 사랑과 정의를 이치에 알맞도록 한다면, 지는 사랑과 정의를 알고 지켜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맹자』 5:27)

이 네 가지 덕성이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짐,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마음으로 발현됩니다. 네 가지 마음을 네 가지 덕성이 드러나는 단서라고 해서 사단이라고 하고, 네 가지 덕성을 사덕이라고 칭합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라고 합니다.

맹자가 어린아이를 들어 설명한 측은지심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갑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어린아이가 우물로 떨어질 것을 걱정합니다. 보자마자 드는 이 마음은 그 아이의 부모를 알아서도 아니고 남들이 뭐라 말할까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한 어린 생명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맹자』 3:6)

어린아이가 앞에 우물이 있는지 모르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왜 인간은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인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라고 한 것입

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자기만을 챙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시비곡직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하늘이 만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하늘이 준 거룩한 덕을 누구나 다 받았다." 바로 사람은 태생적으로 거룩한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거룩한 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곡이 선비의 풍습이 경박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헛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적에 거룩한 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양심이 마비되고 헛된 공명만 숭상하면서 덕을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율곡은 사도가 끊어지고 교화가 밝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올바른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입니다.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인 스승과 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승은 교육자로서 가르치고 기르며, 학생은 피교육자로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스승과 제자라는 두 주체로 이루어지는데, 올바른 교육은 스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스승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도리가 사도입니다. 율곡은 스승의

본분에 걸맞은 실천과 교육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가 끊어졌다고 봅니다. 그 잘못된 교육의 병폐로 선비의 풍습이 경박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헛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율곡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적에 거룩한 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덕을 발현한다면 누구나 인격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대리석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지요.

율곡이 올바른 교육의 요체를 녹여낸 책이 바로 『학교모범』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된 습속을 제거하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변화시키자고 합니다.

율곡이 교육을 중시하는 태도는 유학의 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논어』는 잘 알려진 것처럼 공자의 말씀과 행적을 위주로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공자의 생각과 삶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예수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는 첩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논어』는 2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편이 '학이편'입니다. 본 편의 처음에 나오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에서 따온 편명입니다. 그 시작이 "배우고 수시로 익힌다면 역시 기쁘지 않겠느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역시 즐겁지 않겠느냐? 남이 나를 알아

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역시 군자답지 않겠느냐?"(『논어』 1:1)입니다.

전통시대 동아시아 사상을 주도한 유학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논어』의 서두를 장식하는 글로는 참 밋밋합니다. 누구나 말할 만하고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교의 근본 경전인 『도덕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 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퍽이나 철학적입니다.

기도의 사도인 요한이 지었다는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떨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한복음』 1:1)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논어』는 왜 하필이면 특별할 것 없는 배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논어』는 배움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배움을 제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논어』의 핵심을 한 글자로 말하면 인(仁)입니다. 이 인을 삶으로 체현하는 사람이 인자(仁者)입니다. 공자는 인을 제일 중시하고 인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역시 분명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공자는 공부로는 결코 남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 집 정도가 사는 크지 않은 동네에도 충성되고 믿음이 공자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자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논어』 5:27)

공자 스스로 성인이나 인자라고 자처하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결코 싫증내지 않고 가르치기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논어』 7:33) 그랬더니 자공이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지혜를 추구는 것이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인애의 마음이니 인애와 지혜를 갖추고 있는 공자는 이미 성인이라고 했습니다.(『맹자』 3:2〈13〉)

배우는 사람은 열린 자세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어느 날 공자가 태묘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담당자에게 제반 사항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공자가 예를 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예를 잘 안다면 물어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이다."(『논어』 3:15)

자공이 공문자(孔文子)의 시호를 문(文)으로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공자가 부지런히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시호를 문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논어』 5:14)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배우는 사

람은 열린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열린 자세는 교만이나 고집과는 한참 다릅니다.

공자 스스로 자신은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자부했는데, 제자들 중에 자신처럼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제자가 딱 한 명 있습니다.(『논어』 6:3) 공자의 수제자라고 칭해지며 가난하게 살다가 일찍 죽었다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연입니다.

증자가 안연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 안연은 능숙하면서도 능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학식이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어도 없는 것 같고 꽉 차 있어도 빈 것 같다.'(『논어』 8:5)

안연은 능숙하지만 완전히 능숙하지는 못하다는 마음 자세를, 많이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있어도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그 쟁쟁한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부를 좋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공부의 자세가 바로 인자가 되는 토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했고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논어』 14:25)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공부와 남을 위한 공부 중에

서 어떤 공부가 진정으로 공자가 원하는 공부일까요? 자신을 위한 공부일까요? 남을 위한 공부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남을 위한 공부 둘 다일까요?

공자가 한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공부는 흔히 생각하듯이 이기적인 공부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위한 공부도 이타적인 공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공부는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공부라는 의미인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남을 위한 공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라는 의미인 위인지학(爲人之學)으로 정의합니다.

『논어』에서 사용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은 가치 구분이 명확합니다. 위인지학은 틀린 공부이고, 위기지학은 올바른 공부입니다.

위기지학은 안연이 잘 실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호학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공자가 오랜 시간 천하를 주유하고 말년에 노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노나라의 제후가 애공입니다. 애공이 제자 가운데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회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하여 노여움을 옮기지 아니하며 허물을 두 번 하지 아니하더니 불행히도 명이 짧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으니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습니다."(『논어』 6:2)

공자는 안연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허물을 두 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연이 지식이 깊고 넓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공부에 매진해서 공자가 안연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율곡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선비들은 풍습이 경박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헛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기지학이 아니라 위인지학을 한다는 비판입니다.

율곡은 『학교모범』을 만들어서 위기지학을 제대로 가르치자고 합니다.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몸을 가다듬고 일을 처리하는 규범으로 삼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학교모범』에 들어있는 16개 조목을 제자는 지켜 행하고 스승은 이를 가지고 먼저 자신을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16개 조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문 원전 음미하기

天生蒸民, 有物有則, 秉彝懿德.
천 생 증 민 유 물 유 칙 병 이 의 덕

人孰不稟, 只緣師道廢絶, 敎化不明, 無以振起作成.
인 숙 부 품 지 연 사 도 폐 절 교 화 부 명 무 이 진 기 작 성

故士習偸薄, 良心梏亡, 只尙浮名, 不務實行.
고 사 습 투 박 양 심 곡 망 지 상 부 명 부 무 실 행

하늘이 만백성을 낳으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는지라 하늘이 준 거룩한 덕을 누구나 다 받았건만 사도가 끊어지고 교화가 밝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작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비의 풍습이 경박하여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헛된 공명만 숭상하고 실행을 힘쓰지 않는다.

天: 하늘/生: 낳다/蒸: 불을 가해 찌다. 수증기(水蒸氣), 증발(蒸發) 등으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많다/民: 백성/則: 법칙/秉: 잡다/彝: 떳떳하다. 여기서는 영구히 변하지 않는 도리/懿: 아름답다/德: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정직한 마음. 사덕이라고 하면 인의예지를 말한다/孰: 누구/稟: 주다는 의미로 품부하다. 여기서는 받다는 의미로 품수하다/只: 다만/緣: 인연. 여기서는 연유/師道: 스승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도리/廢絶: 폐하고 끊다/敎化: 백성을 가르치고 풍속을 변화시키다/無以: ~할 수 없다/振起: 떨쳐 일어나다/作成: 만들다/故: 따라서/習: 풍습/偸: 얇다/薄: 얇다/良心: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량한 마음/梏: 수갑. 구속하다, 억압하다/亡: 없어지다/尙: 숭상하다/浮名: 헛된 명예/務: 힘쓰다/實行: 실제적인 행동

今將一洗舊染, 丕變士風, 旣盡擇士敎誨之道,
금 장 일 세 구 염 비 변 사 풍 기 진 택 사 교 회 지 도

而略倣聖賢謨訓, 撰成學敎模範,
이 략 방 성 현 모 훈 찬 성 학 교 모 범

使多士以爲飭躬制事之規, 凡十六條.
사 다 사 이 위 칙 궁 제 사 지 규 범 십 육 조

爲弟子者, 固當遵行, 而爲師者,
위 제 자 자 고 당 준 행 이 위 사 자

尤宜先以此正厥身, 以盡表率之道.
우 의 선 이 차 정 궐 신 이 진 표 솔 지 도

이제 장차 지난날의 물든 습속을 일소하고 선비의 기풍을 크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비를 가려 뽑고 가르치는 방법을 다해서 성현의 가르침을 대략 본받아 『학교모범』을 만들어서 많은 선비들로 하여금 몸을 가다듬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규범을 삼게 하니 모두 16조로 되어 있다. 제자 된 자는 참으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되고 스승 된 이는 더욱 이 법규로써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 이끄는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今: 지금/將:장차. ~하려고 하다/一: 일거에. 한 번으로/洗: 씻어내다/舊: 묵은/染: 물들다/丕: 크게/變: 변화시키다/士風:선비의 기풍/旣~而: 이미 ~하고 또 ~하다/盡: 다하다/擇:선택하다/敎誨:가르치다/略: 대략/倣: 모방하다/聖賢: 성인과 현인/謨訓: 가르침/撰成: 만들다/使 ~하게 시키다/以爲: ~로 삼다/飭: 삼가다/躬: 몸/制事: 일을 하다/規: 규범/爲: 되다/固: 진실로/當: 마땅히 ~해야 한다/遵: 따르다/尤: 더욱/正: 바르게 하다/厥: 그/盡: 다하다/表率: 본보기